

4/2(토) 삼하 22-24장 행복한 말년의 조건

다윗은 사무엘하를 끝으로 주연 자리에서 내려옵니다.
이후 묵직한 조연으로 출연하다가 무대에서 퇴장합니다.

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등장했던 다윗(16장),
우여곡절 끝에 승전가를 부르며 마지막 말을 남긴 다윗(22-23장),
끝까지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?
그러나 다윗은 요압조차 주저하는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(24:3).
그 죄로 인해 7만 명의 백성이 전염병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(24:15).

보통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행되었습니다(민1장, 26장).
20세 이상을 계수해 인당 1/2세겔 속전을 성전에 들였습니다(출30:11-16).
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인구조사를 명하고 있습니다(24:2).
앞선 사건들을 통해 왕국을 더 속속들이 살펴야 한다는 강박,
왕권을 강화하고 후계 구도에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는
다윗 말년의 고민과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.

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뜻을 전하셨습니다(24:11).
갓은 다윗이 무명이던 시절, 말씀을 전해주던 선지자입니다(삼상22:5).
다윗은 갓을 만나며 계산 없이 말씀을 듣고 따르던 시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.
광야 시절부터 지금까지 매순간 신실하셨던 주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.
다윗은 죄를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(24:14,17).

절대적으로 선한 인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
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,
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<끝까지>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,
이것이 다윗 이야기가 미담 아닌 <하나님>으로 끝나는 이유입니다.

나의 이야기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?

- ❶ <이 정도면 되었다>, 말씀을 듣는 일, 순종하는 일에 은퇴하려 하지 않습니까?
- ❷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가 아니라 <이후(노후) 걱정>에 골몰하지 않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삼하 22-24장